



광남일보



광주은행, 포용금융 이용 고객에 보험료 지원
시민금융진흥원·DB생명과 재해수술비 등 보장 **7**

영산강 문화·생태·역사 되새긴다
10월 8~12일 '2025 나주영산강축제' **8**

해남고구마, 명품 브랜드 자리매김
군, 연구센터 가동...기술 개발·현장 실증 **10**

점 하나 찍는데 31초...수국' 화폭에 만날
낙성마비 장애인 백은영 첫 개인전 9월 9일까지 **11**



문인 북구청장이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 보고회'에 참석해 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침수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북구 서방천 직선화로 극한호우 침수 막겠다”

문인 구청장, 특별재난지역 지원·침수 예방대책안 발표 토지·건물 매입 등 타당성조사 추진...내년 행안부 건의 입체 하수로·신안철교 재가설·용봉천 우회수로 신설도

이번 여름에 내린 '괴물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북구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관련기사 6면
북구는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신안동 주변 서방천의 구조 변경을 비롯해 용봉천 우회수로 신설, 광주전 개천 등을 제안했다.
북구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 약 150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북구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 22개의 극한 호우 대응 도시침수 예방 대책(안)을 내놨다.
특히 이번 폭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신안동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신안철교 재가설, 서방천 하부 입체 하수로 신설 등 3개 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하천 구조변경이 핵심이다.
신안동 주택가는 저지대인 데다 서방천과 맞

닿아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높다. 이번 폭우 때는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차수벽이 저지대 대로변에서 물려 들어오는 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큰 피해로 이어졌다.
북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침수 지역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서방천을 직선화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천 직선화를 통해 범람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단면을 넓히는 한편, 기존 교각 6개의 신안 철교를 제거설해 유수량을 확보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또 일대 하수관로 개선, 우수펌프로 신설, 홍수에·경보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한다.
북구는 관련 사업비가 약 3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 이달 중 사업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내년 3월 행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북구는 삼각동과 마곡동 등 용봉천이 복개된 곳의 배수가 불량하다고 판단,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용봉천 우회수로로 만드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신설 배수로는 용봉IC부터 영산강까지 3.8km 구간이다.
광주전 일대 범람을 막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북구는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광주전 대심도 지하방수로 개설과 연계해 양동복개상가를 철거하는 방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전 범람이 장기적으로 주변 누문동 침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정부 '5급 3특 전략' 대응...장기적 행정통합 등 노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새 정부 5급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노력,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등에 도정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지방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 국정 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 상황을 토대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급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 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전남 행정 통합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광주시와 오는 27일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해 광역철도,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바이오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양 시·도가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에 대한 맞춤형 특례를 담은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 전국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2면에 계속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 뉴스 좋아요!

대중교통 타거나 걸으면 광주시민 3만원 받는다

광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9월부터 시민참여수당 첫 시범운영에 나선다.
광주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익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도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년 시민참여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분야 6개 과제를 모바일 앱 '워크온(Walk On)'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활동 실적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만원을 모바일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참여자 모집은 20일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4세 이상 시민(외국인주민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수당 '시범사업' 진행 9월부터 3개월간 2000명 대상

다만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보상 지급 때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2000명이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워크온 앱 설치·회원가입한 뒤, 참가신청용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자·보 분야'를 중심으로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일반 미션으로는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회당 200포인트 지급,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회당 200포인트, 하루 8000보 이상 걷기 달성 시 회당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특별 미션으로는 '걷기 좋은 길' 방문 시 회당 2000포인트(월 3회 한도), '차 없는 거리' 행사 참석 회당 1000포인트(월 2회 한도), 지패스(G-PASS) 선불카드 발급 1000포인트(최초 1회 한도)를 지급한다.
하루에 여러 미션을 동시에 수행하면 각각 실적이 모두 반영되며, 같은 미션은 1일 1회만 인정된다.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며,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통·보행문화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